

Abstract

Global Village and Refugees: Missionary Role of Korean Church

Refugee issue is hot one in South Korea as well as Global Village. How do Christians feel about refugees? According to one source, "Christians are twice as likely to fear refugees as help them". Why do Christians react this way when the history of our faith has been deeply immersed in the story of migration from the very beginning? Adam and Eve were forcibly displaced from the Garden of Eden. Noah was a migrant. Abraham, Moses, and Joshua spent much of their lives on the move. Jesus, himself, was a refugee.

How should we respond to refugee issue today? The Bible assures our Christians that "God has not given us a spirit of fear and timidity, but of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2Timothy 1:7). The Bible is clear about what we should do: welcome the stranger, or as Jesus called them in Matthew 25, "the least of these". Thus, this essay aims how to deal with the issue from a Biblical perspective. Based on the Biblical teaching, the current refugee issue is not problem but possibility and opportunity for missionary enterprise. The migration including refugees, whether forced or voluntary, should be viewed not as accidental but part of God's sovereign plan.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 예멘 난민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교회도 이 난민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비자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예멘 난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예멘이 이슬람 국가인 만큼 이번 난민 거의 전원이 무슬림이다. 그 탓에 한국에서도 유럽 난민 사태의 영향 하에 본격적인 반 이슬람, 반 난민 여론이 일어났다.

이들에 대해 2018년 9월 14일 예멘인 난민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었고 10월 17일 예멘인 난민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들은 수도권 등 제주도 외 타지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과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출입국청에 따르면 현재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들 중 251명

은 이미 출도 해 제주도를 떠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멘인 난민들 중 34명은 난민 지위가 불인정되었다. 나머지 예멘인 난민 85명은 결정이 보류되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4일 결정 보류자 85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어 심사가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 결정이 보류되었던 85명중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2명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되었고 22명은 난민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로써 총합하여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 갑작스럽게 대두된 난민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 해안은 교회가 난민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 및 선교적 접근이다.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자발적 및 강제적으로 오게 된 무슬림들을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의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II. 난민에 대하여

1. 난민 발생의 원인

UN은 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종교적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는 숫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난민발생의 원인은 첫째,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난민 발생 원인이 소위 실패한 국가—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시리아, 예멘,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콩고, 에리트레아 등)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내전으로 치달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1990년대 코소보 내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내전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다. 국가와 정부의 실패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생긴 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한 언론사는 현재 예멘 인구 2800만의 3분의 2는 구호물자에 의존해 살아간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와 같이 주변국의 관여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3년간 이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후로도 교착 상태는 3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예멘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극심한 기근에 역사상 최악의 콜레라까지 겹쳤다. 국제사회의 평화 중재 노력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 평화회담은 2016년 이후 공식 중단됐다. 지난달 유엔 중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2년 만에 정부군과 반군의 평화회담이 추진됐지만, 회담 당일 반군 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예멘 내전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약 12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멘 난민이 처한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서구의 국가 중 특히 미국은 시리아 난민의 경우 그 나라의 상황이 비상사국이기때 그 곳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들은 거의 다 난민으로 바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난민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앞으로 예견 될 환경난민이다. 스위스의 실천적 사회학자로 아프리카 연구자인 장 지글러(Jean Ziegler)는 그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에서 아프리카가 사막화로 인해 “수백만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최근 한 언론자료는 “기후변화로 20년 내 아프리카 거주민 1000만 여 명이 유럽으로 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향후 수십 년 안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리아 내전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환경정의연대(EJF)는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기후변화로 생겨난 난민이 시리아 사태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유럽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체니(Stephen Cheney) 전직 미국 장성은 “유럽이 지금 이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20년만 기다려봐라”며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 거주민 1000만~2000만여 명이 지중해를 건널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기후변화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시리아 내전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사태가 촉발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시리아 역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들이닥쳐 150만 여명이 도시로 이동하는 등 내전이 촉발할 만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도 기후변화는 사회, 정치적 긴장 관계가 수면 아래 숨어 있는 어떤 사회에 폭력과 내전이라는 재앙적인 결과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을 세우는 국가 지도자나 경영자 등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동, 아프리카 뿐 아니라 미 루이지애나 등에 천문학적 피해를 가져온 허리케인과 같은 사례처럼 선진국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난민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 이주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 때문이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창12:10). 이 기근에 의한 이주가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도 발생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창26:1).

이 기근에 의한 아브라함, 이삭의 이주가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도 기근이 일어나고 그 기근 중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이주하게 된다. 이 기근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나타난다.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 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창 41:54-57).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창42:1).

야곱의 애굽 이주 사건이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 한 번 더 강조되는 곳이 창세기 43: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고 그 기근으로 다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다 (43장 2절 이하) 이런 점에서 창세기는 족장들의 역사적 관점만으로 본다면 사실 기근과 흉년에 의해 발생한 이주 사건의 연속이고 이주의 역사이다. 따라서 이주민·디아스포라·다문화·난민 신학의 기초로 창세기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창세기의

이주역사가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또한 이주 및 나그네 생활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나그네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이 나그네에 대한 연구 이주민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기근이 창세기 41장 27절의 “동풍에 말라”라는 표현에서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사실 기근으로 생긴 난민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난민의 정의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종말의 예언인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7-8). 따라서 환경난민은 지구의 온난화 및 사막화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도 국제적 및 교회적 대비도 매우 필요하다.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그 기근이 지역적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에 발생한 것 때문에 환경난민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유럽의 난민문제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서 볼 때 유럽이 저질렀던 식민지 정책과 양차대전의 결과 가운데 생긴 부산물의 결과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난민은 유럽의 원죄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동유럽 슬로베니아 출신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은 그의 책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이러한 견해를 잘 언급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최대위기로 평가되는 난민문제에 얽힌 모든 층위의 논의를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을 연구한다.

넷째, 이런 유럽의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에서 유럽 및 국제정치 부재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의 대표적 학자는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이다. 그에 의하면 오늘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의 문제는 각국의 “정치 부재”¹⁾와 유럽을 포함한 “세계적 차원의 정치 부재”²⁾이다. 난민에 대처하는 국제정치 부재는 유럽이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사실 각자도생의 국수주의³⁾ 및 민족주의적 흐름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난민 문제에 대한 조직적 연합적 접근이 되지 못하는 것도 난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다섯째, 난민문제에서 유럽이 지나치게 경제적 및 자국의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재독 철학자 한병철의 『타자의 추방(Die Austreibung Des Andern)』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의 난민의 위기는 유럽연합이 이기적 목적을 좇는 경제적 상업 연합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한다.

마지막으로, 난민문제의 접근에서 실패의 이유 중의 하나는 서구 철학의 다문화주의의 피상성에서도 기인한다. 툴레랑스 및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럽의 다문화주의 철학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국의 안전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수사’에 불과한 것인가를 쉽게 드러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혁명의 정신에서 태동한 유럽이 유럽에 일하러 온 중동 및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로 상처받은 난민 및 이주민들이 2015년 파리 테러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재직 & 국제다문화 사회연구소장

1) 알랭 바디우,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91.

2) 알랭 바디우,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90.

3) 경향신문 10월 25일자

따라서 이런 난민문제를 유럽의 정치 구조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유럽의 학자들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 중의 한사람이 지적인데 그는 유럽사회가 “난민문제를 범 유럽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일관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난민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경에 처한 난민이 더는 고향 땅을 버리지 않도록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기초를 재건하는 일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유럽적 차원에서 연대를 통해 유럽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연대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유럽이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런 거시적·구조적·정치적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교회가 가장 앞장서야 한다.

2. 난민의 정의 및 난민법

난민법에서 정의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다.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란 주로 사회적 소수자를 가리킨다. 물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독자적으로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을 보는 여론은 차갑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올해 6월까지 총 4만2009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중 4%인 849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유엔난민기구(UHCR)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2000~2017년)을 그보다 낮은 3.5%로 추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8%)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37개 회원국 중 35위다⁵⁾. 심지어 난민법 폐지와 난민협약 탈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청원 마감일(7월) 기준 역대 최다인 71만 명이 서명했다. 특히 난민법 폐지와 난민협약 탈퇴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3. 난민 통계

유엔난민기구(UHCR)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만 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발표했다⁶⁾. 2차 세계대전 때의 난민 수 5,000만 명을 크게 웃돈다. 이 가운데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한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 혁명 이래 난민 수는 6년 연속 증가해 왔다. 현재 시리아 난민의 숫자가 국내난민과 해외난민을 합쳐 1100만 명,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 족 난민 100만 명, 남수단 난민이 약 100만 명,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으로 난민들의 숫자가 증

4) 연합뉴스 8월 6일자 자료 제목: 한국사회, 난민과 만나다
<https://www.youtube.com/watch?v=1fx5xMGbaoc> (접속일, 2018년 8월 6일)

5) 경향신문 2018년 10월 25일 2면

6) 조선일보 2018.06.20. 국제 A19 면 정시행 기사

가하고 난민의 시한폭탄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54만 7천명의 베네수엘라 인들이 콜롬비아 국경을 지나 에콰도르에 들어왔다”⁷⁾고 한다.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난민이 나타나고 있다. 남수단과 북수단의 내전으로 발생한 100만 명의 난민과 짐바브웨에서 남아공으로 넘어온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현지빈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난민은 동유럽의 1990년대 유고연방 해체이후 인종적·종교적 분쟁으로 코소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8년의 코소보 내⁸⁾전에서 약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말미암아 2014년 이후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한 자료에 의하면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으로 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난민의 시한폭탄으로 드러나고 있다.

4. 난민에 대한 유럽과 국내의 최근 경향

유럽도 난민과 이주인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었지만 최근 유럽의 경제상황과 안전의 문제로 난민에 대해 부정적 반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반응에 편승해서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대부분의 극우 정당들은 반 이민, 반 난민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헝가리는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반 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해 8월에 방문한 헝가리 현 대통령이 난민유입을 반대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함으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6개 이슬람 국가와의 왕래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세계가 자국내 통합을 해칠 수 있는 타인을 봉쇄하는데 혈안이 된 듯하다. 최근 조선일보 ⁹⁾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령 최남단 시칠리아 해협에 위치한 람페두사섬, 인구 6000명 작은 섬이 5~6년 전부터 글로벌 구호단체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110km 떨어져, 쪽배에 의지한 중동·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몰려드는 '유럽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섬엔 난민 40여 만 명이 밀려왔다. 도중에 익사한 시신이 수 십 구씩 떠밀려오곤 한다. 이곳 주민들은 난민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풍경은 여기까지다. 지난 해 이탈리아 연립정권을 구성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 '동맹'은 강력한 반(反)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60만 명 넘는 난민이 들어온 이탈리아는 지난 해 600여 명이 탄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가 몰타 및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입항을 막아섰다. 이유는 이탈리아의 20%대 실업률과 경제난의 주원인으로 난민이 지목되면서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국들이 '난민 수용의 1차 책임은 난민이 도착하는 나라에 있다'는 유럽연합(EU) '더블린 조약'만 내세우자, 분노한 이탈리아는 EU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난민에 대한 현재적 분위기이다. 무엇보다도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이 이처럼 변화한 데에는 난민유입에 따른 일자리 부족, 잠재적 테러 가능성, 히잡이나 부르카 혹은 메카를 향하여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이질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

7) 한국선교훈련원, 『세계를 품은 기도』 309호(2018.8.17.), 1.

8) 이정록 외, 『세계분쟁지역의 이해』(서울: 푸른길, 2016), 223.

9) 조선일보 6월

다. 따라서 난민의 문제가 유럽의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스티븐 카슬(Stephen Castles)이 그의 책 「이주의 시대」에서 강조한 “이주의 정치화”¹⁰⁾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 것이다. 이주의 시대에서 유럽 국가들은 당초 중동 혁명으로 인한 '정치 난민'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옛 식민지의 주민인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책임감도 있었다. 난민은 요양사, 건설노동자 등 유럽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인력 부족 해결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폭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내전 초기 시리아 인들은 어떻게든 국내에 머물렀지만 이때부터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생계형 난민의 쓰나미'가 시작된 것이다. 2016년 퀴르에서 일어난 난민들의 독일 여성 집단 성폭행, 2017년 18세 소녀 살해 같은 사건이 반 난민 여론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이슬람 문화는 여전히 유럽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유럽은 국가 안보와 정체성 위기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엔 독일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한 반발감이 크게 작용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2000년 평균 8.5%에서 지난해 24.1%로 늘었다. 미국에서도 2016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며 당선됐다. 이런 최근의 전 세계적 난민에 대한 부정적 상황이 한국의 예멘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다.

최근 국내 모 국회의원¹¹⁾은 “유럽에서 안고 있는 골칫거리를 우리가 왜 떠맡아야 하는가?”라고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 발언을 했다. 혹자는 유럽의 난민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자살골’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연합뉴스¹²⁾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들은 첫 번째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44%, 둘째, 종교와 문화적 갈등 21.9%, 셋째, 일자리 감소 15.6%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인들과 함께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짜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5. 난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응책

한겨레는 지난 해 8월 6일 한 전문가와 인터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되면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공포는 현실적인 공포라기보다는 ‘상상의 공포’에 기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난민 반대 여론에 편승할 게 아니라 불안감을 잠재울 ‘시스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난민 반대 및 혐오에 대한 적극적 대처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 때문에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이유는 제주도 예멘 난민이 일하러 가는 곳은 한국 젊은이들이 가기 쉽지 않은 배와 관련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필자가 이주민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현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과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없이는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라고 최근 조선일보¹³⁾는 보도한다. 그 언론사는 최근 건설현장에 얼마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상황인지

10) 카슬은 이 책에서 이주의 일반적 경향을 6가지로 구분한다. 이주의 세계화, 이주의 가속화,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정치화, 이주의 차별화, 그리고 이주변천의 확산

11) 연합뉴스 8월 6일자

12) Ibid.

13) 조선일보 2018년 4월 23일자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리석과 벽돌을 나르는 근로자들의 안전모에는 중국·베트남·러시아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 현장의 근로자 250명 중 약 200명이 외국인인데,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스티커로 표시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김해지역과 주변의 진영과 함안 등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중소기업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3D 직종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거의 폐업직전인데 그들이 무슨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제주도 예멘 난민들이 한국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속권의 일도 할 수 없다. 지난해 연말 필자가 제주도 예멘 난민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돕는 이주민 연대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이주민 및 난민, 그들 대부분이 거의 3D 직종의 일을 하는데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정직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다. 또한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혹은 ‘테러리스트’로 보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유는 난민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합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은 가운데 만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바로 강제 추방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난민이라고 한다면 무모하게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난민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쉽게 들어오기 매우 힘들다고 한다¹⁴⁾.

이런 맥락에서 한 언론사는 제기된 몇 가지 우려들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일까. 우려와는 반대로 이들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저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메워주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될까.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테러 경로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들의 범죄율은 또 어떨까, ‘외국인은 범죄자’라는 편견이 여전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훨씬 못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를 ‘안보 위기’로 보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사실인가 혹 과장인가. 난민 전문가의 대답¹⁵⁾에 의하면 그렇다. 과장되어있다. 난민이 사회에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예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100만 명, 200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대규모로 유입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는 특정 정치인과 단체들에 의해 과장된 경향이 있다. 난민은 위협이 아니다.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모든 난민들이 선량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위협을 가할 수도, 절도를 할 수도 있다. 이걸 법규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예외적이다. 난민이 다른 사람보다 범죄자일 확률이 높다는 증거는 없다.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다. 이런 여론의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III. 한국정부, 사회와 교회의 역할

많은 난민 전문가들은 한국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난민 이슈를 고민할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본다. 일단 법무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제주 난민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첫째, 난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태도는 피하고 법은 준수하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국제적 수준이나 OECD 수준을 고려해서 높여야 한다. 둘째, 난민문제는 국가가 다루기에 너무나 방대하고 힘

14) 한국일보 2018년 6월 28일

15) 경향신문 2018년 10월 25일

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특히 교회의 역할, 이 가운데 지역 대학과 병원 및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보완해야 할 점은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난민문제를 어떻게 연대 및 연합해서 해결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 문제는 차후에 깊이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이주와 난민의 문제는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초연결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상호의존성을 지닌 문제이기에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난민혐오 및 편견에 대한 한국사회의 난민문제의 대처 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난민관련 책임자들이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 난민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무분별한 난민 수용과 반대가 가져다 올 파국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난민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적 인도주의도 심각한 문제이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 기초해서 진짜 난민을 가짜 및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잘못도 피해야 한다. 가짜 난민은 난민 심사의 장기간을 악용해서 불법 체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고, 잘못된 정보로 난민을 비난하는 대표적 사례는 난민들이 한 달에 1백 만 원 넘게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이다. 난민들이 난민심사 과정 중 1인당 6개월간 43만 원 정도 받고 그것도 예산 부족으로 난민 중 3.2%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언론인이 “난민에 대한 멸시와 혐오보다 더 심각한 건 공포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 보다는 막연한 공포에 치우쳐 잘못 판단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공포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난민이 무슬림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상된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국가 및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난민반대 여론이 높고 심지어 난민옹호에는 수많은 반대 댓글이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유엔난민기구 그란디(Grandi) 최고대표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의 난민 반대 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서의 “자신감”을 특히 강조했는데 정부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 한다. 물론 난민법 폐지 청원에 서명한 70만 명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UN난민기구에 개인 후원을 하는 한국인 23만 명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예멘인들에게 쌀과 담요, 머물 곳을 제공한 제주도민도 있다. 이들도 실재하는 사람이고, 이들 역시 유권자다.

그러나 정부조치와는 별개로 무엇보다도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경우도 예멘 난민들을 법적 차원에서 정부와 해당부서가 대응하지만 난민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왔다. 예를 들면 제주 이주민 연대와 제주지역의 교회와 천주교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따라서 법적 부분은 정부에게 맡기고 그 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회와 개인이 인도주의적 및 선교적 관점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 교회의 난민 돕기: 봉사-디아코니아 사역

교회의 네 가지 핵심 역할은 예배, 교제, 봉사 및 증거이다. 그 가운데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여 봉사 및 금출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신명기 10장 18-19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옷과 떡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14장 28-29절에 매 삼년 마다 거두는 십일조를 레위인,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저축하고 그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점에서 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 및 봉사사역이다. 오늘날 양극화와 가난의 문제에서 생기는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교회의 봉사사역이고 그것이 매우 필요한 계층이 나그네와 난민에 해당한다. 이 봉사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다. 교회의 봉사사역의 관점에서 제주도에 있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예멘 난민을 돕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언론 인터뷰¹⁶⁾에 의하면 특히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들이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 개신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현재보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유는 국내에 개신교 숫자가 천주교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난민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그들이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은 법적의 순서와 절차를 존중히 여기는 범위 내에서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약성경 특히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지난 해 필자는 미국한인교회를 목회한 지역교회 목사를 그의 교회에서 만났다. 필자는 그 목사와 대화 중 오래전 미국의 시애틀의 워싱턴의 트리시티에 있는 교회들이 베트남 난민들을 그 지역의 교회가 책임지고 맡아서 돌보고 섬기고자 할 때 정부에서 그 난민들을 그 교회들에게 맡겼다는 사례를 듣게 되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 베트남 난민들을 섬겼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콜럼버스(오하이오주), 시애틀 같은 몇몇 도시들이 소말리아 난민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왔다.

마찬가지로 2012년 펜실베이니아 메노나이트 교회가 소말리아 난민¹⁷⁾을 영접해서 섬겼다고 한다. 소말리아는 오랜 기간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그곳에서 1967년 의료선교사로 봉사했던 메노나이트 의사가 그 당시 그곳에 사역하면서 출생을 도와주었던 남성이 세월이 지나서 2012년 난민으로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난민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 의사가 출석하던 스프링 필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케냐에 피해있는 그 난민을 주도적으로 돕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교회에서 그 난민 가족을 돕기 위해 집을 구해주고 자녀들을 위해 학교문제를 처리해 주고, 정착비용을 마련해주고 1년간 가족의 월세를 부담해주고, 살림살이가 필요할 때마다 교인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심지어 소형차를 기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환영 팀의 한 멤버는 그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우리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게 되자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오크 크리크 메노나이트 교회가 (시리아 사태로 교회는 2015년 시리아 난민 가족을 돕는데 참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소말리아 난민 가족이 연결되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받아들였고 교회는 의료, 재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갖춘 8-10명의 교인으로 이뤄진 환영 팀을 구성했다. 환영 팀의 한 회원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 해외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것이야 말로 고국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길입니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소말리아 난민들을 돕는데 교회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6) 한겨레의 보도

17) 김진봉외,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 (서울: 두란노 2018), 207-213.

2. 개인과 단체의 난민사역

개인으로는 모범적으로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돕고 있는 인터서브 한국 대표로 일했고 예멘에서 오랫동안 의료인으로 일했던 박준범 의사, 오랫동안 난민들을 도왔던 (사단법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난민들을 위한 법무법인 어필의 변호사이며 난민들을 돕기 위한 단체인 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 이일 변호사 등이다. 2017년 KOICA로부터 해외 봉사 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던 이대영¹⁸⁾ 글로벌 케어 레바논지부장은 NGO소속이지만 의료인이다. 그는 4년 넘게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 등 긴급 구호 활동에 헌신해서 올해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제12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자로 이씨를 선정했다. 코이카에 따르면 현재 국제 의료구호 단체인 글로벌케어 레바논지부장이자 외과 전문의인 이씨는 2013년부터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거주 지역에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며 1만5,000여명의 난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또 주 1회 응급 처치, 위생·전염병 교육, 산전 후 관리 등 보건 교육도 실시했다. 1988년 몽골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05~2011년 예멘에서 외교부 산하 비정부기구(NGO) 국제의료협력단(PMC) 요원으로 활동하며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현지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단체로서는 지금 방글라데시 꾸투풀랑에서 100만 명 로힝야 족 난민을 돕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서 (사단법인)지구촌 구호 개발연대이다. 최근 이일을 돕기 위해서 필자를 포함한 32명의 의료팀이 로힝야 족 난민촌을 방문했고 그곳에 세브란스 병원과 길병원에서 후원했던 10억 원 상당의 의약품 중 6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9월 추석 기간 동안에 서울대 치과 의사들이 방문했고 최근 부산중앙교회는 그들의 정기적 후원금을 모아서 로힝야 족 난민들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앞으로 예멘 난민들의 ‘인도적 체류’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정부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영역을 한국사회와 종교단체가 책임지는 모범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와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난민들을 돕고자 한다면 법무부에서 난민수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난민 수용률이 조금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론이 난민수용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또한 난민들을 돕는 가시적 노력들이 시민사회 및 종교계에서 일어날 때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난민 수용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다문화 사회연구소가 처음으로 개최한 난민포럼진행 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을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협치다. 정부와 시민과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 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 상 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돕는다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실 거라 확신한다. 교회의 봉사 사역이 오늘날 소득의 양극화 가운데 생겨나는 부작용을 해결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및 구호사역이다. 필자는 지난 해 7-8 월 여름 동유럽의 분쟁지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다. 특히 세르비아에서 약 500 명이 넘는 중동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타 및 소말리아와 파키스탄의 난민들을 만 났다. 그곳에서 미국 및 유럽의 기독교 단체들이 난민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사 역하는 모습을 보았다. 동유럽 방문 중 체코의 프라하의 지역교회가 중동의 난민을 각 교회

18) 한국일보 2017.11.19

별로 난민 할당제를 맡아서 그들을 보살피기도 했다는 소식을 체코 현지교회를 통해서 들었다. 알바니아를 방문해서 들은 보고에 의하면 1998년 코소보 난민 발생 때 알바니아에 있는 알바니아 현지교회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국제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소식도 알바니아 선교사로 일하는 합동교단 이용범선교사로부터 들었다. 특히 코소보 난민은 알바니아계가 많았고 그래서 알바니아로 피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알바니아계 코소보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필자가 방문한 몬테네그로 경우도 코소보 난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IV. 예멘 난민 사례¹⁹⁾

난민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민감하고 대응하는 국내 언론사는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및 세계일보 이다. 필자는 최근 한겨레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언급하겠다.

한겨레 기자는 6월 26일 제주의 한 성당 근처에서 <한겨레>와 만난 예멘인 이브라힘(가명·34)이 자신의 탈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1. 예멘의 난민일기

아직도 생생하다. 2018년 5월 15일 아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주를 향하던 에어아시아 비행기에는 30명의 예멘인이 타고 있었다. 예멘인 승객 중에는 나와 아내 라일라(가명·34) 그리고 한살배기 내 아들 하산(가명)도 있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닿는 순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비행기를 탄 예멘인들의 얼굴에 모두 나처럼 미소가 가득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비행기 안 예멘인 30명이 느낀 안도감이 딱 그랬다. 우리에게 제주를 낯선 희망의 땅이었다.

나는 예멘에서의 삶을 사랑했다. 적어도 전쟁 전까지는 그랬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 나는 ‘예멘 에어라인’에 취직해 터키, 방글라데시 등 26개국을 다녔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부터는 상황이 견잡을 수 없게 흘러갔다. 2015년 3월이 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이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나의 하늘 위에서 전투기가 폭탄을 쏟아낸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아내 라일라와 결혼한 지 2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이후 예멘에서의 삶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을 다녔던 기억뿐이다. 수도 사나에서 타이즈로, 타이즈에서 호데이다로, 호데이다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또다시 사나로. 우리 가족의 삶은 쏟아지는 폭탄을 피하기 위한 피난의 연속이었다. 아이와 노인들은 집 안에 있다가 폭격으로, 이웃들은 콜레라 등 질병으로 죽어나갔다. 사나 공항에서 일할 때 아랍 연합군의 공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는 지금까지도 비행기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내가 사랑하던 예멘에서의 삶은 그렇게 파괴되었다.

19) 한겨레 2018년 6월 26일

2015년 8월, 나는 인접국인 오만을 거쳐 말레이시아에 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먼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돈을 번 후, 적당한 때를 살피 아내를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다행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뤄졌다. 나는 오만을 거쳐 그해 9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말레이시아에 머문 지 1년이 되어가던 2016년 7월, 아내는 라마단(무슬림의 금식월) 기간 중 잠시 포성이 멎은 틈을 타 예멘을 탈출했다. 예멘을 떠날 때, 나는 도로변에서 폭격으로 몰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탈출 중 생존은 순전히 확률의 문제였다. 우리 부부는 운이 좋았다. 말레이시아는 예멘보다 안전했다. 유엔난민기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으로 도망쳐 온 피난민들의 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나는 밥을 먹어야 했고, 잘 곳이 필요했고, 예멘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낼 돈이 필요했다. 결국 불법적인 경로로 식당에 취업해 접시를 닦았다. 숙소는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이었다. 일은 고됐다. 휴일도 없이 하루 17시간을 일해 처음 1년 받은 한 달에 300달러를, 다음 1년 받은 한 달에 400달러를 벌었다. 근근이 끼니를 이어던 2016년 말 아내가 임신을 했다. 2017년 가을에 사랑하는 아들 하산이 태어났다. 병원비를 지불하느라 수중에 있는 돈을 거의 털어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시로 불법 취업을 단속했고, 그때마다 임기응변이나 읍소로 빠져나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취업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도 허락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예멘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결정을 한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내는 금으로 된 결혼반지를 팔았고,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몇 안되는 가구도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 2000달러를 전 재산으로 우리는 5월15일 제주도에 도착했다. 예멘에서의 피난생활, 말레이시아에서의 그림자 같은 삶, 고난과 두려움이 한 번에 씻기는 기분이었다.

갓고 온 돈이 숙소비와 식비로 바닥나기 시작해, 수중에 고작 200달러가 남았을 때였다. 가족이 ‘홀리스’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예멘인들을 돕는다는 한 성당의 수녀님을 만났다. 행운이었다. 수녀님은 내게 필요로 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닫힌 공간(closed place)’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장과 벽이 있어 비바람을 피하고, 우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간이면 충분했다. 우리 가족이 예멘과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공간이다. 수녀님은 내게 내 부모님 또래의 부부가 사는 제주의 한 가정집을 소개시켜줬다.

부부는 아늑한 방과 맛있는 음식,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줬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사다주었고, 아내가 몸살을 앓을 때는 병원을 데려갔다. 우리 아이를 제주의 목장으로 데려가 말을 태워줬다. 무슬림이 먹는 음식에 대해 묻고 재료를 고심해 골랐다. 그들은 나를 ‘아들’이라고, 내 아내를 ‘딸’이라고 부르며 낯선 곳에서의 삶을 다독여 주었다. 하루는 나처럼 제주의 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압둘라(가명)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갇을 수 없는 빛을 지고 있다고. 그렇다. 우리는 갇을 수 없는 빛을 지고 있다. 우리는 제주의 ‘부모님’께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멘인에 대한 한국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상황을 알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그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이곳 제주에 왔다. 내가 숙소에서, 은행에서, 슈퍼마켓에서 만난 제주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줬다. 그들의 친절이 우리를 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여준 친절을 우리 가족이 갚을 기회가 있길 바랄 뿐이다

위의 기사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첫째, 천주교의 수녀와 신자들을 통한 난민에 대한 종교의 역할, 둘째,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린 언론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멘 난민들이 괴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예의바르고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V. 난민과 환대

환대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화두이고 이주민과 난민에게 접촉점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환대가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대의 철학자를 살펴보자. 유대인으로 리투아니아 출신이며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유대인으로 알제리에서 출생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두 프랑스 철학자이다. 두 철학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과 죽음의 고비를 겪었던 사람으로 타자와 이방인 및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혹자는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 및 윤리의 철학을 데리다가 ‘환대’라는 주제로 해석하고 적용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런 관계로 두 사람은 환대의 철학 연구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지내왔다. 자크 데리다(1930-2004)는 그의 책 『환대에 대하여』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집안에 맞이하는 이방인은 하루 동안 신이다.”²⁰⁾ 또 이방인에 대한 그의 유명한 경구,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소속과 이름을 묻지 말라, 단지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물어라”고 했다. 데리다의 환대에 대한 신학자 브루스마(Boersma Hans)의 설명²¹⁾에 의하면 데리다에게 “환대란 문을 두드리는 낯선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주려는 준비됨과 완전한 개방의 자세”를 뜻한다. 그에게 있어서 “환대는 타자의 희생이 아닌 자기희생을 뜻한다. 심지어 나그네가 나의 환대를 훼손할 가능성조차도 그 환대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데리다는 이 환대의 결과가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강조한다. 이유는 “이는 새롭게 오는 자가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리다의 환대는 절대적이며,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순수한 환대가 궁극적으로 악마에 대해서까지 이용당한다고 하더라도 데리다는 순수한 환대를 옹호하며 그는 조건적 환대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브루스마는 “환대에 관한 데리다의 이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떠한 경계도 없는 개방성과 무조건성의 요구에 중심”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데리다의 이 환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누군가는 터무니없는 미친 소리로 치부할 수 있다. 혹자는 필자의 견해를 너무 이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에 대해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제동을 건다.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세상 속에서 환대를 향한 의지와 환대의 제공은 무조건적일지라도 환대는 조건적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²²⁾.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에 대해 볼프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환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선

20) 자크 데리다, 남문선 역, 『환대에 대하여』(서울: 동문선, 2004), 51.

21) 한스 브루스마,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14), 64-67.

22) 볼프,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79.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만난 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변에 강도들이 와서 자기를 살해하고 소유물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위험을 느끼면서도 치료하지 않았을까?

셋째로 소설이다. 소설이지만 무조건적 환대의 예를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에서 찾을 수 있다. 남수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소설에 나오는 디뉴의 미리엘 주교는 문간에 나타난 이방인에게 문을 열고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고 환대를 한다. 무조건적인 환대.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환대받은 이방인은 주인을 해칠 생각까지 했고(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을 훔쳐 도망친다. 이방인을 환대했을 때 당할 수 있는 불행이 그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의 문을 틈새 없이 닫고 잠근다. 마음의 문도 꼭 잠그는 것을 미덕으로,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무조건적 환대의 강화력이 어떠한지 그 사례를 장발장에서 잘 볼 수 있다”²³⁾.

이 환대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난민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사회가 그 사회에 도착한 모든 낯선 존재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오늘도 전쟁과 독재정권을 피해 유랑하던 난민들에게 세계 각국이 기꺼이 내어준 자리, 그 지극한 환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 자세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적 선교가 아닐까? 이것이 몰트만이 그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그 길은 “그리스도론적 범주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범주”²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적 사랑과 희생을 따라가는 윤리적 삶이 아닐까?

넷째, 환대는 성경적이다. 환대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데리다는 『환대에 대하여』 책에서 환대의 대표적 사례로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돔의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될 상황에서 찾아왔던 천사를 대하는 롯의 예이다.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소돔사람들에게 손님을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 놓을 정도로 손님에 대한 환대를 언급한다. 사사기 19장에 나타나는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자 할 때 나그네였던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기까지 하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문화를 보여준다. 신약성경에서 환대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탕자의 비유이다(눅 15:11-32). 환대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부르스마는 환대를 신적인 덕(Divine Virtue)으로 간주하고 레티 M. 러셀(Letty M. Russell)은 『공정한 환대』의 책에서 환대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²⁵⁾으로 묘사한다. 이 환대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난민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VI. 난민선교

최근 수년간 난민문제는 국제 주요 3가지 이슈 즉 기후변화와 테러와 함께 큰 골칫거리이다. 유럽이 난민문제로 나라 전체가 진보와 보수의 입장으로 둘로 쪼개질 정도이다. 우리도 한국전쟁으로 난민이었던 나라이고 현재 난민으로서 북한 탈북민의 숫자도 3만 명이 넘는

23)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158-159.

24)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0.

25) 레티 M. 러셀외, 여금현 역, 『공정한 환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다. 최근 탈북민 난민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방송 및 언론에서 수차례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대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한국을 떠나 제 삼국으로 향하는 숫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 해 8월 10일 난민 브로커들이 예멘으로 향하던 아프리카 난민 180명가량을 바다에 빠뜨려 난민 60명 이상이 익사하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난민 브로커들이 예멘 해안 근처에서 밀입국 단속반에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바다로 밀어 넣은 것이다. 인면수심의 짓이다. 희생자 평균 나이는 약 16세로 조사됐고 윌리엄 스윙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자비하게 익사 당한다면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엔난민기구 보고에 의하면 내전을 피해 이웃으로 피난한 남수단 난민 수가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보고는 남수단 난민 규모가 아프리카 최대로, 난민 1,10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세계 3위의 난민 사례라고 경고했다. 2011년 7월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은 종교, 인종 갈등으로 건국 2년 2013년 12월 내전에 빠져들었다. 남수단 난민의 85%는 여성과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우간다에 도착한 남수단 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집에 가둔 채 불태우고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인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바로 이 남수단은 이태석 신부가 의료 봉사활동을 했던 곳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을 위해 이론과 실천의 모범적 삶을 사셨던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난민에게 무관심한 한국 사회와 교회를 가리켜 “난민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우리나라와 이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는 한국교회” 라고 질타한 적이 있다. 그는 또 “만약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노동자들과 난민들이 대거 몰려왔다면 아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국수주의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바꾸어 놓는 ‘유쾌한 오보’ 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파리 난민포럼(2월 8-11일)에 참가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난민 사역에 종사하는 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꼈다. 그것은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의 난민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시리아 및 기타 지역의 무슬림 난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잡지 2017년 월드뷰 2월호 내용이다. 글쓴이는 2017년 1월에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라브리 공동체 대표이며 국제라브리 회장을 역임했던 리트게르크(Wim Rietkerk) 목사이다. 그는 유럽에 몰려드는 시리아를 포함한 기타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에 보내 주신 '뜻밖의 선물'로 바라본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고국과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수많은 무슬림들은 새로 정착한 땅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유럽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주자 놀랄만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2015년부터 독일에 몰려든 난민 약 100만 명 중 현재까지 무려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그가 살던 네덜란드 동네 교회에서도 70명의 무슬림들이 새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이슬람국가를 찾아간 어떤 선교사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어 낸 적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난민 사태로 그 나라에서는 이슬람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무슬림들이 난민이라는 특수한 상황

에서 복음에 매우 쉽게 노출되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이고 갈급한 상황 때문에 복음에 매우 수용적이 됨으로써 선교의 열매와 결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작가 루이스(C. S. Lewis, 1898-1963)가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확성기’라고 말한 것처럼 시리아 난민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들은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민 사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교 수확 및 추수의 기회인 것이다.

유럽과 중동의 한국인 및 유럽의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많은 중동의 난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잘 훈련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동족 무슬림들을 복음화 하는데 소중한 도구로 쓰임 받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선교사들이 예견하고 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위한 한인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미국 선교부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난민 선교의 중요성과 효과를 깨닫고 매우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럽의 난민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고 쇠락해 가는 유럽 교회를 깨우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네덜란드 리뜨게르크 목사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그의 글 결론에서 이런 질문을 제시하였다. ‘혹시 하나님은 유럽을 기독교적 뿌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난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포착해서 난민 선교 파도의 물결에 타야 하지 않을까?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에 6,700만 명의 난민이 존재하며, 시리아 인구 2,200만 명 중 난민은 1,100만 명이다. 그들 가운데 자국 내에 거주하는 난민은 600만 명이고, 해외에 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복음의 선교적 접근과 그 열매와 효과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매우 이 사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날 시리아 독재자에 의해 발생한 시리아 난민이고, 그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본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의 ‘누가 네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부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강도 만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다. 따라서 ‘이웃’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필요자와 공급자가 공간적 개념을 뛰어 넘는 이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참여한다면 공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에게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익히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많은 난민의 행렬 가운데 지중해에서 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중해, 난민들의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비극적 사례가 지난 해 9월 2일 KBS ‘김혜수의 난민일기’에서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경험은 쾌락과 고통이다. 하지만 고통이 쾌락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떤 점에서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를 택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영국의 C. S. 루이스(C.S. Lewis)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과거에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은 주로 자연이었지만 지금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80%는 인간이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류적 재앙과 난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는가? 해결책은 보편적 인류애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독일의 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고 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시리아 난민 및 모든 고통 받는 난민을 위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

Ⅶ. 이슬람, 기독교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난민이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무슬림 난민이 문제다. 특히 이슬라모포비아²⁶⁾로 무슬림 선교에 대한 가능성과 중요성이 부정 및 약화되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신학적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선교의 해외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무슬림권선교사 파송 비율은 약 4%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 세계 무슬림 선교사 파송비율도 비슷하게 4%이다. 이런 현상은 이슬람 국가에서 비자문제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역의 결실이 적기 때문에 기인한 요인도 있다. 이것을 선교 역사학자 스티븐 날이 잘 지적했다. “무슬림 국가들은 기독교 선교에서, 생산적인 선교지에 비해 소홀히 여겨졌다.”²⁷⁾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는 이슬람 혐오 및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혐오이다. 이 혐오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심층 및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이 혐오현상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슬라모포비아가 가져다주는 현실적 유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경계와 주의 및 그 위험성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슬라모포비아가 무엇보다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역사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위대하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복음의 절대적 능력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부패와 타락, 인간의 사악한 죄의 본성 및 성격을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직시하지만 그 인간의 죄악성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불가항력적 은총 및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무슬림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무슬림이 위험하고 무서워도 복음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 가사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Ⅷ. 무슬림의 조상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각 종교의 위대한 조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부른다. 특히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그들의 중요한 조상으로, 아랍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

26) 무슬림 혐오라는 뜻보다는 무슬림 공포라는 의미가 어원적으로 정확하다. 포비아는 헬라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27)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New York, Penguin, 1964), 378쪽에서 재인용, 키스 스와틀리 편저, 정옥배 역, 『인카운터 이슬람』(서울: 예수전도단, 2008), 348.

한다. 심지어 이스마엘을 선지자(라술: *rasul*, 코란 4:163:19:54) 및 메신저로 간주한다. 그 뿐 아니라 이스마엘이 무슬림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족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전 세계의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은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요한 축제와 코란 및 성지순례에서 알 수 있다.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은 매년 ‘이들 아드하’(*Idul Adha*)라는 가장 중요한 축제를 통해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기념한다. 이들 아드하의 축제는 많은 양과 소를 도살하는데 그 이유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아브라함 선지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사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꾸란은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친 것을 기념하여 축제를 기념한다(꾸란 37:102).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 다른 행사는 메카를 향한 성지 순례 때이다. 성지순례는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규범 5가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이슬람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스마엘의 미래는 이슬람의 미래와 절대적 관계이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스마엘에 대해 매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는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말씀은 이스마엘과 그의 족속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 증오심을 수정하게 해 준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16장은 아직 이스마엘이 하갈의 복중에 있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와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16:11) 라고 위로 하신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의 고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어 갈 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창 21:17)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고 샘물에서 물을 얻게 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 주어 그의 생명을 살리라고 지시한다(창21:1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및 축복을 언급한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 등장한다. 이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이스마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창 16:10) 둘째,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신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창세기 17:20). 이 말씀들 통해 우리가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선교계획은 이사야 42장과 60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두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곳에 언급된 계달과 느바웃은 이스마엘의 첫 두 아들들이다(창25:12-13;대상 1:29)).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사42:11) “계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게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사60:7).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와 섭리로 무슬림 선교를

통해 우리의 형제 이스마엘 후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고 확신한다.

IX. 결론: 난민에 대한 객관적, 신학적 및 선교학적 접근

무엇보다도 난민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어느 언론인이 “난민에 대한 멸시와 혐오보다 더 심각한 건 공포다” 라는 지적처럼 객관적 사실 보다는 막연한 공포에 치우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판단한 것도 사실이다. 이주민과 난민 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세계적인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은 최근 발행된 그의 책 『이주민 위기(Migrant Crisis)』에서 이 점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그 책에 의하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난민들을 도와주려는 것 보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두 배나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했다²⁸⁾. 이런 공포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난민이 무슬림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상된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멘난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선교학자 J.H. 바빙크(J. H. Bavinck)는 조직신학과 선교학을 재미있게 비유하였다. 조직신학은 기독교를 방어하고 보호하느라 변증적이다 보니 소극적·방어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교학은 타종교와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 적극적·공격적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도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예멘 무슬림 난민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들에 대한 안전도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피하기만 한다면 난민 무슬림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 선교사가 무슬림지역에 파송비율이 4% 정도²⁹⁾에 그치는 것이다.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두 정탐꾼이 가졌던 자신감으로 무슬림 난민들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지나치게 움츠려 든다면 아말렉 족속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능력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불신앙의 엄청난 죄악이다. 그것은 영적 패배주의다. 패트릭 존스톤의 지적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예멘 난민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택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는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선교의 기회³⁰⁾로 여겨야 한다.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 지적한 것처럼 예멘난민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한국교회는 삼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난민들에 대한 냉정하게 위험한 현실은 직시하되 그들에 대한 접근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난민들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이 그의 책 『그리스도의 길』에서 지적

28) 서언에서(Forword)

29) 키스 스와들리 편저, 『인카운터 이슬람』, 59.

30) Johnstone, Patrick. Merrill, Dean, *Serving God in a Migrant Crisis: Ministry to People on the Move* (GMI, 2016), 8.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리라.

유럽은 최근 난민 문제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포기했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와 국가 안전의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피상성은 재독 철학자 한병철의 『타자의 추방(Die Austreibung Des Andern)』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의 난민의 위기는 유럽연합이 이기적 목적을 좇는 경제적 상업 연합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미로슬라브 볼프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따뜻한 포용과 정의로 이주민들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수용국은 끌어오는 이주자들 보다 내몰린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급진적 주장까지 한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일차적으로 수용국에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문제가 아니라(예를 들어, 최고의 엔지니어를 끌어 들여 도착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들을 이민과 관련한 당사자나 극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고 꿈같은 소리로 치부될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과는 다른 입장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유는 교회는 고통 받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타인을 돕는 손, 가난한자에게 달려가는 발, 불행을 보는 눈, 한숨과 슬픔을 듣는 귀를 가진 것이야말로 사랑의 참모습이다”라고 갈파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랑의 교회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지치고 병들고 갇힌 자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귀의 교회(이곳에서는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들려진다)나 눈의 교회(이곳에서는 신실한 자들이 보고 경험하기 위해 성례가 집행된다)일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교회이기도 하다”³¹⁾.

유럽이 다문화주의를 포기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해져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이민자와 난민들의 유입으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극우주의자와 극우정당들이 창궐하고 유럽의 다문화 사회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고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가 유럽의 일부와 같이 이주민 및 난민에 대한 혐오와 이슬라모포비아등 극우주의자들로 갈 것인가? 그것은 비겁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앞에서 언급한 자크 데리다의 주장처럼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는 아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중 자기도 그런 위험이 바로 등 뒤에서 칼과 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을 오늘날 난민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이지 않을까. 따라서 한국교회는 유럽의 난민문제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앞장서야 한다.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마5:41)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및 로힝야 족 난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따르는 위험과 수고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말이다.

31) 다니엘 밀리오리, 신옥수, 백충현 역,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50.

선교학자 존 맥케이(John Mackay)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방식에 따른 선교(mission in Jesus Christ)”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선교는 기독교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자 다니엘 L. 밀레오리(Daniel L. Migliore)는 “만약 교회의 선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그 활동은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이며, 그럼으로써 주변화 된 자들과 낯선 자들, 소외되고 무가치하고 우리를 동요시킬 정도로 이질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 주변화 된 자와 낯선 자’ 및 ‘소외되고 무가치한 자들’이 신명기 신학에서 강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고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주민과 난민들이다. 한국교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기독교적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난민으로 오셨다(마2:13-18). 헤롯왕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참고문헌

김진봉외.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 서울: 두란노, 2018.

레티 M. 러셀외. 여금현 역. 『공정한 환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다니엘 밀리오리. 신옥수, 백충현 역.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볼프,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자크 데리다. 남문선 역.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알랭 바디우.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이정록 외. 『세계분쟁지역의 이해』 서울: 푸른길, 2016.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키스 스와틀리 편저. 정옥배 역. 『인카운더 이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8.

한스 브루스마.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GLC), 2014.

한국선교훈련원. 『세계를 품은 기도』 309호. 2018.8.17.

Patrick Johnstone, Dean Merrill. *Serving God in a Migrant Crisis: Ministry to People on the Move*. GMI, 2016.

경향신문 10월 25일자

조선일보 2018.06.20.

조선일보 2018년 4월 23일자

한국일보 2018년 6월 28일

한국일보 2017.11.19.

한겨레 2018년 6월 26일

연합뉴스 8월 6일자 자료 제목: 한국사회, 난민과 만나다

<https://www.youtube.com/watch?v=1fx5xMGbaoc> (접속일, 2018년 8월 6일)